

롯데호텔, 폴코스 요리 '파인 다이닝 옛 홈'

롯데호텔이 호텔 폴코스 다이닝을 드라이브 스루로 즐기는 '파인 다이닝 옛 홈'을 내놨다. 5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서비스로 시그니엘(서울/부산)과 롯데호텔(서울/월드)의 폴코스 요리를 할리웃적인 가격으로 집에서 즐길 수 있다. 예약은 롯데호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수령 희망일 최소 하루 전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이번주 청약 시작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긍정론과 신중론 사이'

백신 개발·위탁생산...5조 몸값 '대어'가 온다

(코로나19)

(국내 최초)

4일 하루 400여 건 기관 청약 접수 희망공모가 6만5000원 상당 넘어 수요예측 경쟁률 1000 대 1에 육박 상황 후 기업가치 4조9725억 예상 시장 변동성 우려...일부선 신중론도

SK바이오사이언스 기업 개요	
설립일	▶ 2018년 7월 1일
종업원	▶ 726명
업종	▶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주요제품	▶ 백신 제품 및 제제
자본금	▶ 306억 원
매출(2019년)	▶ 1839억4000만 원
순이익(2019년)	▶ 146억8000만 원
최대주주	▶ SK케미칼(주)(지분율 98%)

* 자료: IR GO



이번 주 기업공개에 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성남 본사를 5일 방문한 은수미 성남 시장(사진 왼쪽). 성남시는 2026년까지 바이오헬스산업 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IPO(기업공개)의 첫 대어로 꼽히는 바이오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가 드디어 이번 주에 청약을 진행한다. 기대를 한 몸에 받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4일과 5일 진행된 수요예측부터 뜨거운 열기를 보여 지난해 SK바이오팜에 이은 또 한번의 흥행 성공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변동성이 커진 최근 증시 상황과 고평가된 공모가의 부담 때문에 "뚜껑을 열어보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기대를 한 몸에 받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4일과 5일 진행된 수요예측부터 뜨거운 열기를 보여 지난해 SK바이오팜에 이은 또 한번의 흥행 성공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변동성이 커진 최근 증시 상황과 고평가된 공모가의 부담 때문에 "뚜껑을 열어보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 수요예측 최대 1000 대 1

최종 수요예측 결과는 8일 공시에서 발표하지만,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일단 이틀간의 수요예측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싱가포르투자청(GIC), 노르웨이뱅크 등 해외기관까지 참여하면서 4일 하루에만 400여 건의 기관 청약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예상하는 수요예측 경쟁률은 1000 대 1에 육박한다. 지난해 상장 흥행에 성공해 비교대상인 SK바이오팜의 경쟁률(836 대 1)보다 높

은 수치다. 상당수 기관이 희망 공모가 밴드 4만9000원~6만5000원 상단을 넘는 금액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기대가 높은 것은 백신사업에 대한 잠재력을 기관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맺었다. 올 초에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 등과 컨소시엄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의 임상에 들어간다. 연구개발과 별도로 경북 안동에 자체 생산시설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위탁생산을 함께 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실적도 2019년 매출 1839억, 영업이익 228억, 당기순이익 147억 원을 기록했다. SK바이오팜이 같은 해 영업손실 793억 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되는 성적이다.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인 6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SK바이오사이언스의 IPO의 규모는 1조4917억 원에 달하고, 상장 이후 기업가치는 4조972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 변동성 높아진 증시에 신중론도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의 IPO에 대한 예감이 낙관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SK바이오팜이 흥행에 성공했던 지난해와 올해 증시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들어 신중론을 펼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해에는 증시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상승세에 불이 붙은 시기였지만, 지금은 미국 국제 금리 등 각종 변수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공모가의 과도한 고평가도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요소다. 투자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현재 예상되는 높은 공모가 수준이라면 상장 뒤 사실상 '파상상(공모가 2배+이후 연속 상한가)'은 기록해야 수익권에 들어온다. 대장주격인 셀트리온헬스케어를 비롯한 바이오 테마들이 요즘 다소 부진한 점도 상장 이후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수요예측 최종 결과를 8일 공시한 뒤, 9일과 10일 일반 투자자 대상의 청약을 진행한다. 전체

공모주는 2295만주이며 이 중 25~30%인 573만7500~688만5000주를 개인에게 배정한다. 정확한 물량은 수요예측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 청약은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SK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여섯 곳에서 진행된다.

이번 청약은 전체 물량의 50%를 균등배분제로 배정한다. 청약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주식을 많이 배정받는 기존 비례배분 방식과 달리, 균등배분제는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준다.

SK바이오사이언스 주관사들은 일괄 청약방식을 채택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적은 금액으로도 공모주 배정을 받을 수 있어 한 증권사 계좌에 증거금을 집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다양한 증권사 계좌에 동시 청약을 하는 것이 보다 많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 등의 개별 주관사 최대 청약건수였던 21만 건을 기준으로 NH투자증권에 최소청약(10주)을 신청하면 약 2~4개의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증권사까지 포함한다면 최소청약으로 10개 주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공모가가 6만5000원으로 정해진다면 1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3만2500원을 증권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단, 증권사별 청약자격이 다르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은 청약개시일 전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계좌는 청약진행 중에도 개설하면 공모주 신청을 할 수 있다. SK증권도 청약마감 전까지 개설하면 자격을 얻게 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주간 국어 스테디매거진 '독해왕' 초중등 때부터 수능 국어 잡는다

매주 중요한 이슈를 제재로 20페이지씩 발행



모든 시험을 관통하는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이식해주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학습지가 출시됐다. 독해력 향상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탄생한 신개념 주간 국어 스테디매거진 '독해왕'(사진)이다.

일간신문 어린이동아와 월간 시사원정대를 발행하는 동아일보 교육법인 동아이지에듀가 매주 20페이지씩 발행하는 '독해왕'은 '국어 영재'를 꿈꾸는 초등 고학년부터 수능 고득점을 목표로 국어 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중학생이 대상이다.

학생들은 매주 '독해왕'으로 국어 독해에 필요한 원리와 기술을 꼭 집어 '원포인트'로 익히고 다양한 분야의 읽을거리를 접하며 글의 요지를 파악하는 훈련을 한다. 교과 공부에 필요한 기초지식도 키울 수 있다. 눈길을 사로잡는 재밌는 그림과 인포그래픽 등의 요소가 다채롭게 담겼다.

2021학년도 수능 국어에선 코로나19 상황과 연계된 비문학 지문이 출제됐다. 최신의 정보, 시사이슈를 다룬 지문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 '독해왕'은 최신의 뉴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비문학 지문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을 망라해 매주 실린다. 매주 중요한 이슈를 제재로 선택해 발행되는 국어 학습지는 '독해왕'이 유일하다.

실제 수능에 출제되는 비문학의 제재별 분야와 수능형 문항 유형을 그대로 따 지문, 문항 구성으로 초중생의 눈높이에 맞춘 수능형 독해와 풀이의 경험을 제공한다.

구독문의는 동아이지에듀(1893-3503)로 하면 되며 정가는 1권당 3500원(1년 정기구독시 권당 3150원)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동아전람, '인천 건축박람회' 개최 11~14일, 송도컨벤시아서 진행

박람회 전문기업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인천 건축박람회'가 11~1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열린다.

건축과 주거공간에 필요한 전 품목을 전시하며 건축 자재 및 건축공구, 원원주택, 정원·조경, 인테리어 등 다양한 건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인천 가구엑스포, 인천 스포츠·레저 산업 박람회, 인천 홈&리빙페어, 인천 차 공예 및 핸드메이드페어와 동시에 열려 다양한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관련 산업의 최신동향 및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시장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전시장 방문을 제한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동아전람 홈페이지(한글인터넷 주소: 동아전람)에 사전등록하면 무료관람 조정장을 문자로 발송해 준다. 정정욱 기자

스타벅스, 김구 선생 친필 휘호 '천하위공' 기증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5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문화재청,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 휘호 '천하위공(天下爲公)' 전담식(사진)을 진행했다. 김구 선생이 1948년 쓴 것으로 '천하가 개인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이의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3·1절과 광복절 기념상품 수익금으로 조성한 독립문화유산보호기금 1억 원도 기부했다.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는 "고객과 함께 대한민국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신한은행, 서울시 금고 과다출연 기관경고·과태료 21억원 부과

신한은행이 2018년 서울시 금고 입찰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1억3110만 원을 부과 당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입찰에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제시한 1000억 원 중 393억3000만 원이 시금고 운영을 위한 필수비용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은행법은 은행 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 원이 아닌 650억 원만을 반영했다"며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정정욱 기자

홍남기 부총리 "LH사태, 부당이득 환수...2.4대책 추진"

LH 직원 땅투기 의혹 관련 사과 "자금출처·탈세여부 등 조사할 것" 참여연대, 기관 강제수사 병행 요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외의,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할 것"이라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 강경 방침을 밝혔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관계부처 장관들과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공식 사과의 뜻을 밝힌 홍 부총리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 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의 일탈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고,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기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토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등록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4가지 교란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투기 의혹으로 3기 신도시 철거 국민정원이 등장하는 등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발표된 2.4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3월 중 민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개발 후보지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와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홍 부총리 발표 뒤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외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